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19일 월요일 음 9월 3일 (10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구름 많겠다. 아침 기온은 15-16°C. 낮 최고 기온은 21-22°C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including precipitation and wind speed.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 information.

Table with 7-day weather outlook.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weather information.

월드뉴스

존엄사 선택했지만... 포기 못한 '권리'

美 남성 대장암에도 투표 선거 전 사망해 무효 처리



마지막 투표를 위해 걸음을 옮기는 제임스 웬들 윌리엄스(77·가운데)의 모습.

올해 초 대장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제임스 웬들 윌리엄스(77)는 다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나라의 건강이야말로 모두가 우려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나를 투표사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현지시간 1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근교의 버밍햄에 사는 윌리엄스는 가족들에게 "존엄사를 선택하겠다"고 알렸다.

윌리엄스는 투표 8일 뒤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윌리엄스가 행사한 마지막 한 표도 무효표가 됐다.

윌리엄스는 항암치료를 포기했지만, 2020년 대선에 참여해 마지막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

미시간주 선거법은 선거일 전에 사망한 사람이 행사한 사전투표를 무효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악화하자 대선 당일까지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사전 투표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전 투표 당일, 사전투표소로 이동하기 위해 빠져 마른 몸을 머느리 차에 실었다.

데이비드는 "(아버지의 표가) 집계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너무 화가 났다"면서도 "(무효처리가) 아버지의 표에 담긴 뜻을 흐리게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백록담



문 미숙 행정사회부장

며칠 전 제주시 등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원인 모를 악취로 인한 대소동이 있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시 민원실에는 100여건의 전화가 잇따랐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관련 민원이 쏟아졌다.

예측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행정을

제주시의 발표처럼 악취의 발원지가 제주시가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센터에서 만든 퇴비로 인한 것이라면 퇴비 제조와 관리 과정상의 문제점을 이번 소동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시킨 꼴이다. 센터에선 제주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소멸화공법으로 퇴비로 만드는데, 보관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원회)는 악취 문제를 줄곧 제기해온 터였다.

1999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음식물자원화센터에는 하루 평균 140t의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된다. 2019년 11월부터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5개 읍면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20t 가량도 이곳으로 함께 반입되고 있다. 그런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시설 노후화로 올해는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5월 한달 동안은 가동을 못 해 퇴비로 만들지 못한 음식물쓰레

기가 쌓이면서 심한 악취를 유발시켰다. 설상가상으로 20kg 단위로 포장해 희망농가에 판매하던 퇴비포장 시설도 남아 올해는 포장도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주민대책위원회는 읍면지역의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며 시설 과부하로 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악취가 난다며 8월15일부터 반입금지를 예고하기도 했다. 제주시가 오는 11월까지 음식물 퇴비 소포장등을 지어 악취를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대책위원회는 반입금지를 11월까지 잠정 유보한 상태지만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일이다.

제주시와 주민대책위원회가 협약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의 사용기한은 내년 10월까지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를 대체하기 위해 서귀포시 색달동에 추진 중인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공과 시운전까지 3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구좌읍 동북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이 준공되기 전까지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연장사용을 둘러싼 수 차례의 주민대책위원회와의 협의과정을 행정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올해 음식물자원화센터 관련 악취로 불거진 주민대책위원회의 반입금지 예고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시설 노후화로 빨리 예견되는 일이었음에도 행정이 문제 해결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사용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지금 행정의 선택지는 연장사용 외엔 답이 없다. 결국 주민들을 협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하는데, 20년 넘게 악취를 견뎌온 마을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참았으니 앞으로 한 3년쯤 더 참아달라'고 하는 식이어서 안된다. 주민들이 협의에 응한다면 그동안 보여준 예측가능한 행정의 일처리와 주민교통을 덜어주기 위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노력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열린마당

노인복지제도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최은정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고령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 노인의 인권 및 삶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어른에 대한 예절 및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를 중시해 왔다. 하지만 요즘은 노인을 약하고 힘없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불법 광고물보다는 브랜드 가치 높이기로



이은실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출근길은 불법전단지, 퇴근길은 화려한 에어간판과 함께한다. 그래도 한동안 길거리를 점령하던 불법대출명함이나 홍보전단지는 보이지 않는데, 가끔 어마어마한 양의 전단지들 수거해 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불법전단지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하고 있지만 철거된 자리에 다른 현수막이 급세 자리를 잡아 허탈하게 만든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불법광고물은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홍보해야 할 것이다.

요즘은 브랜드 홍보시대이다. 단순한 일회성 광고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대신, 자신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오게 해야 한다.

수많은 경쟁 속에서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한명의 고객이라도 유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또한 중요하지 않은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길 당부한다.

Advertisement for Jeju Hanra Farm products, listing various types of citrus fruits and their prices.

Advertisement for Hanlim Farm products, listing various types of citrus fruits and their prices.

Advertisement for Gamgul Farm products, listing various types of citrus fruits and their prices.

Advertisement for Gamgul Farm products, listing various types of citrus fruits and their prices.